

왕권과 교권의 대립을 통해 본 신대륙의 가톨릭 전파과정 연구*

이 성 훈
(서울대학교)

I . 들어가면서

1492년 9월 16일 3척의 배를 이끌고 카나리아 제도를 떠난 콜럼버스가 그해 10월 12일 카리브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신대륙 ‘발견’ 혹은 ‘정복’은 아메리카 대륙의 운명을 바꾼 세계사적인 사건의 시작이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세계사적인 사건이 가져온 효과를 ‘콜럼버스의 교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다. 콜럼버스의 교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러한 대륙 간, 혹은 문명 간 접촉과 갈등, 그리고 상호 작용은 식민시기 당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콜럼버스의 교환이라는 개념은 다소간 가치중립적이고 기계적인 수사를 사용함으로써 아메리카 정복이 주는 폭력적인 성격을 다소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런 콜럼버스의 교환이라는 세계사적인 사건이 갖는 ‘정복’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종교의 영역이다. 물론 가톨릭 초기 전파 과정에서 아메리카 지역에 나타나는 신크레티즘(sincretism)은 정복자들의 종교가 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수한 형태로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피정복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토대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식민시기 내내 보여주었듯이 가톨릭은 정복과 지배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토대였다.

신대륙 ‘발견’과 함께 시작된 아메리카 대륙의 가톨릭 전파는 이제 500년 이 지난 지금 아메리카를 세계에서 가장 가톨릭 신자가 많은 대륙으로 변모시켰다. 2011년 교황청의 통계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의 가톨릭 신자 수는 592,310,000명으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수인 1,213,591,000명의 48.8%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가톨릭 신앙 지역이 되었다. 또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톨릭 신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아메리카 대륙의 브라질과 멕시코이다. 신자 수는 각각 164,780,000명과 100,446,000명으로, 이들 국가들에서 가톨릭은 신앙의 형태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Jorge Mario Bergoglio) 추기경이 근대 이후 비유럽 출신의 사제로는 최초로 교황에 선출된 사건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가톨릭이 전 세계 가톨릭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이다. 또한 북아메리카의 미국의 가톨릭 신자 수 역시 70,536,000명으로 전체 국가들 중에서 필리핀에 이어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아메리카 대륙에 가톨릭이 전파된 지 5세기 만에 이 지역에서 가톨릭은 가장 두드러진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톨릭이 전파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과정은 국내에서 그리 중요하게 연구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1492년 신대륙 발견과 함께 아메리카 대륙에 가톨릭이 전파되었다는 사실만 강조되었을 뿐, 그 과정에 존재하는 역사적 변화와 차이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톨릭이 전파되면서 벌어졌던 다양한 과정들이 생략되면서, 식민시기 가톨릭 전파 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맥락이 간과되어 왔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함께 진행된 가톨릭 전파 과정을

1) “교황청, ‘교회 통계 연감 2011’ 발표”,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300&bid=13009679

왕권과 교황권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톨릭 전파 과정에 존재하는 차이와 그 차이의 맥락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런 관점을 통해 신대륙 발견과 가톨릭 전파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왕권과 교황권의 지속적인 갈등 과정이었음을 드러내고, 가톨릭 전파를 보다 복합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새롭게 ‘발견된’ 땅에서 자신의 권력의지를 실현하려는 스페인 왕실과 이 땅에 대한 복음화 권리를 주장하는 교황권은 지속적으로 갈등한다. 이 갈등 속에서 가톨릭 전파 과정을 둘러싼 제도적인 장치들이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초기 가톨릭 전파 과정이 단순하게 종교적인 선의가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권력의지가 충돌하는 일련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가톨릭 전파가 진행되는 과정 내에서는 초기 선교 작업을 주도했던 탁발교단과 이후 가톨릭 교구가 자리 잡게 되면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교구 소속 사제들의 대립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의 차이로 인해 아메리카에서 가톨릭의 전파는 그리 단선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가톨릭 전파 과정의 특징은 당시 식민 지배의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톨릭이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 잡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톨릭 전파의 시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인 테오도르 드 브리(Theodor De Bry)의 “아메리카에 도착하는 콜럼버스(Columbus landing in Indias)”라는 작품에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하는 장면과 가톨릭이 전파되는 순간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콜럼버스 일행을 환대하는 원주민과 대지에 십자가를 세우는 정복자들의 모습은 가톨릭 전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적이고 갈등적인 요소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정복 시기 초기 가톨릭 전파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스페인 왕실과 교황권 사이에 가톨릭 선교와 교회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초기 가톨릭 선교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 라틴아메리카 초기 가톨릭 전파 과정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의 가톨릭 전파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함께 시작되었다. 콜럼버스의 2차 항해에 참여했던 베르나르도 보일(Bernardo Boyl)신부가 교황의 대리자 역할을 했지만, 선교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보일과 콜럼버스의 갈등, 나아가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은 아메리카 대륙의 선교와 정복이라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 협력했지만 초기부터 두 진영 간의 긴장 관계가 존재했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콜럼버스의 2차 항해에 신부들이 동행하기는 했지만 카리브 지역에 가톨릭 선교가 제도적으로 시작한 것은 1510년 도미니크 수도회의 페드로 데 코르도바(Pedro de Córdoba) 신부를 위시한 세 명의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 신부들이 도착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Luque Alcaide y Saranyana, 139) 이후 1523년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신부 12명이 멕시코 지역에 도착하면서 선교의 중심지가 제도에서 내륙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고, 아메리카 대륙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엔리케 두셀(Enrique Dussel)은 독립이전 아메리카 대륙의 선교를 8개의 사이클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Dussel, 35-43) 첫 번째는 카리브 주기(Ciclo del Caribe: 1492-1522)로 콜럼버스의 발견과 함께 시작되어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신부가 서품을 받은 시기까지를 말하고, 주로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톨릭 선교가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두 번째는 멕시코 주기(Ciclo mexicano, 1524-1546)로, 가톨릭 선교의 거점이 카리브해를 떠나 유타칸 반도에서 멕시코 중심부로 확장된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프란시스코 수도회 신부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후 1526년 도착한 도미니크 수도회 신부들과 1533년 도착한 어거스틴 수도회 신부들에 의해 가속화된다. 예수회 신부들이 도착한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인 1572년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아메리카 내륙의 선교는 17세기 후반과 18세기 멕시코 중앙 계곡에서 지금의 미국 남서부 지역까지 북부 지역으로 확장하는 북부 주기(Ciclo del norte),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중앙아메리카지역에서 가톨릭이 전파되던 중앙아메리카 주기(Ciclo centroamericano), 그리고 리마와 쿠스코 축을 따라 진행되

던 페루 주기(Ciclo peruano), 보고타를 중심으로 카리브와 태평양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하던 콜롬비아 주기(Ciclo colombiano),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서쪽에서 선교가 진행되던 칠레 주기(Ciclo chileno), 안데스 동쪽에서 진행되던 플라타강 주기(Ciclo platense) 과정을 통해 진행되게 된다.

정복 이후 아메리카에서 가톨릭 전파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와 지역은 엔리케 두셀이 분류한 8개의 주기 중에서 앞의 두 주기라고 할 수 있다.²⁾ 이처럼 가톨릭 선교는 최초 카리브 지역을 거점으로 진행되었지만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정복의 주축 세력과 선교 세력 간의 상호 이해 부족과 견제로 인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오지 못했다. 정복자들의 가혹한 착취, 원주민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전염병의 창궐, 그리고 식민 초기 엔코미엔다(encomienda)라는 식민적 착취 제도 아래에서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가톨릭 선교는 난관에 직면했던 것이다. 이러한 카리브해 중심의 선교 시기는 원주민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정복자들이 찾던 금이 이 지역에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끝나게 된다. 정복자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을 눈을 돌려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내륙으로 관심이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다.(Floristán and Keefe, 138-139)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브 지역에서의 선교는 라스 카사스 신부의 비판적인 각성에서 알 수 있듯이, 아메리카 선교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의 시작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1524년 당시의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에서 시작된다.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시작한 카톨릭 전파는 1536년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그리고 1540년 페루 지역으로 확장되고, 1560년경에 절정에 달하게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단계는 12명의 프란시스코 회 신부들이 도착하고 이후 도미니코회와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 수도자들이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이들 수도사들은 카리브 지역에서 보여주었던 선교 방식과는 달리, 정복과 독립적인 관점에서 가톨릭 선교를 진행하고자 했다. 라스 카사스 신부

2) 아메리카 대륙의 신학 발전 단계를 나누고 있는 조셉-이그나시 사라나니는 식민시기를 세 단계로 나누고, 트렌트 공의회가 개최되었던 1563년까지를 토대 신학(teología fundante)시기로 파악하고 있다.(Saranyana 2009, xvii) 이 시기가 두셀의 카리브해 주기와 멕시코 주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가 지적했던 것처럼 “지배와 복음화는 서로 양립될 수 없”었고, 카리브해의 좌절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선교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다. 카리브 지역과 달리 아메리카 대륙의 내륙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이미 유럽과 견줄 수 있는 강력한 사회조직뿐만 아니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정복 이후에도 쉽게 유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지속했다. 특히 인신공희와 같은 아스텍 제국의 전통은 가톨릭 신부들에게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고, 더 강력하게 이들의 문화와 종교를 제거하는 방식의 선교 방식을 동원하게 했다. 그러나 라스 카사스 신부의 경우처럼 이들의 전통을 옹호하고 원주민들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는 성직자들이 있었고, 원주민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진 입장 또한 존재했다.(Floristán and Keefe, 139-140)

아메리카에서 가톨릭 선교는 16세기 초반 수도사들이 스페인에서 가져왔던 진정한 탁발 수도회 개혁 정신이 쇠락하고 교구 중심의 교회 체제가 정착하면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다.³⁾ 파트로나토 (patronato)제도를 통해 가톨릭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교구가 자리 잡게 되고, 교구 소속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교회가 재편되게 되면서 아메리카에서 가톨릭 교회의 제도화가 진행되게 된다.(Floristán and Keefe, 140) 이렇게 제도화된 교회는 초기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주민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바꾸게 되고, 탁발 수도회가 보여 주었던 보다 근본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태도와 달리 권위적이고 교조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렇게 교구제도를 비롯한 교회 제도가 안착되고 수직적인 교회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서, 초기 가톨릭 전파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던 기존의 탁발 수도회 중심의 성직자들과 교구 소속 신부들 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나타나게 되었다. 기존 수도회 성직자들은 교구의 주교가 도착하기 전에 원주민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가톨릭 전파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 우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교구 중심으로 선교 체제가 재편되면서 선교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3) 교황 율리오 2세가 1504년 최초로 카리브 해 지역에 3개의 교구를 만들려고 했으나 페르난도 왕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교황이 스페인 왕실에 파트로나토를 명확하게 부여하는 칙령이 반포된 1508년에 최초로 교구가 만들어진다.(Luque Alcaide y Saranyana, 141)

같은 16세기 중반부터 멕시코 지역에서 본격화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알폰소 데 몬투파르 (Alfonso de Montúfar) 주교와 어거스틴 수도회의 알폰소 데 라 베라 크루스(Alfonso de la Vera Cruz) 신부 사이의 벌어진 원주민에 대한 십일조 면제 논쟁, 그리고 헤로니모 데 멘디에타(Jerónimo de Mendieta)가 멕시코 공의회(1585)에서 수도회 소속 신부들이 사제직을 맡고 수도원에 입회하기 위해서 주교들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데 항의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교구 소속 주교로 대표되는 교회 제도에서 벗어나, 수도원 소속 신부 주교라는 새로운 교회 조직을 요청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당연했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원주민 거주지를 중심으로 선교 초기부터 나타난 입장이었다. 원주민들을 개종하는 데 있어 주교들이나 사제들이 적절하지 않고, 청빈하고 적극적인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 입장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Luque Alcaide y Saranyana, 143)

이렇듯 정복 시기 초기 가톨릭 전파는 카리브 시기와 멕시코 내륙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확대되어 간다. 이러한 초기 가톨릭 전파는 원주민 선교에서 탁발 수도회 소속 사제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단계에서 점차 교구들이 설치되면서 교구 소속 사제들이 선교의 중심축을 하는 단계로 옮겨가게 된다.

III. 초기 가톨릭 전파와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

1492년 신대륙이 발견되고 이 땅에 대해 스페인 왕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교황 알렉산더 6세의 4개의 칙령이 1493년에 반포되었다.(García y García, 33-34) 1493년 5월 3일에 반포된 인테르 코에테라(Inter coetera)라는 칙령은 스페인의 가톨릭 양왕에게 발견되었거나 앞으로 발견된 땅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물론 이런 양도에는 다른 가톨릭 군주에 속하지 않은 땅이어야 하면, 이 땅에 가톨릭을 전파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두 번째 칙령은 5월 4일에 반포된 것으로, 앞 칙령의 내용을 보다 확장하

고 정교하게 가다듬은 것이다. 이 칙령은 “분할 혹은 경계”의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새로운 땅을 찾아 경쟁하고 있던 포르투갈 왕실과의 경계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계는 다음해 토르데시야스(Tordesillas) 조약에 의해 수정된다. 세 번째 칙령은 1493년 7월 3일에 반포된 것으로 앞의 두 칙령을 반복하고 있으며, 발견된 땅을 스페인의 가톨릭 양왕에게 양도하고 아프리카에서 포르투갈이 누리고 있던 동일한 특권을 스페인 왕실에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칙령은 1493년 9월 25일에 반포된 것으로 앞의 세 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발견되었거나 발견될 땅의 범위를 보다 더 확장하고 있음으로 인해 “확대의 칙령”이고 명명된다. 이러한 4개의 칙령은 기본적으로 교황이 포르투갈 왕실이 아프리카에서 발견한 땅에 대해 누리고 있던 특권을 그대로 스페인 왕실에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발견되었거나 앞으로 발견될 땅에 대한 소유권을 스페인 왕실에 양도한 이러한 교황 칙령의 반포는, 스페인 가톨릭 양왕의 정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톨릭 양왕은 새롭게 발견된 땅의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고자 했고, 포르투갈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교황의 권위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교황이 스페인 왕실에게 새롭게 발견된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혹은 뒤집어서 말하자면, 왕실이 자신들이 발견한 땅의 소유권을 교황에게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당시 질서의 토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진행될 신대륙에서의 가톨릭 전파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교황이 새롭게 발견된 땅의 소유권을 양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적인 합의가 있는데, 지상의 모든 권력 즉 정신적인 층위의 종교 영역이나 물질적인 영역의 세속적 영역의 모든 권력이 하느님에서 나온다는 중세적인 믿음이 그것이다. 이러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하느님에게서 나온 절대적인 권력이 누구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관철되는가를 둘러싼 입장 차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안토니오 가르시아 이 가르시아(Antonio García y García)는 크게 일원론자와 이원론자로 나뉘서 설명하고 있다.(García y García, 35-38) 일

원론자들은 절대자의 권력이 단 한사람을 통해 인간들에게 관철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원론자들은 단 한명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을 통해 실현된다고 본다.

일원론의 경우에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대자의 대리인을 교황으로 보는 태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황제 혹은 왕을 절대자의 대리인으로 보는 입장으로 분리된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입장을 종교적 일원주의(monismo hierático)라고 명명할 수 있고, 뒤의 사례를 세속적 일원주의(monismo laico)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 방식에 따르면 스페인 왕실에게 발견된 땅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교황의 권력은 종교적 일원주의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절대자의 대리인으로서 지상의 모든 전권을 위임받은 교황은 가톨릭 양왕에게 발견된 땅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적 받침 위에서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가톨릭 양왕에게 양도한 것이다.

이원론은 절대자의 권력이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대리인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입장이다. 즉 정신적인 층위의 권력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통해서 작동하고, 세속적인 영역은 왕이나 황제 등의 정치권력을 통해서 관철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이원론적인 입장 내에서 이 두 대리자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대리자들의 사이의 관계는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국면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변화해 왔다.(García y García, 36)

중세 이래로 왕으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대리인들보다 교황이라는 정신적인 권력을 담당하는 대리자들의 우위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정치권력과 종교 권력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고, 종교 권력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따라 교황이나 교회 성직자들은 정치권력이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듯 각각의 권력이 상대방의 힘을 제약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면서 두 세력 간의 힘의 갈등은 어떤 하나의 권력이 지상의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고 국면과 역사적인 사건의 실제적인 성격에 따라 양상을 달리

하면서 진행되었다. 두 세력 간의 갈등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따라서 교회가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중세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두 세력 간의 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 안에서 교회는 절대 왕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의 물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카스티야 왕국이 가지게 된 파트로나토 레알 (Patronato Real)이라는 권한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García y García, 37)

1. 파트로나토 레알의 출현과 확장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페인 왕실은 교황의 양도를 통해 아메리카 대륙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교황이 스페인 왕실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적인 논쟁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란 자체가 중세에서 근대로 이전하면서 교황권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종교적 일원주의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에는 교황이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믿음이 인정되었다. 이런 권한에 따라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가톨릭 전파를 명분으로 아메리카의 소유권을 카스티야 왕들에게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황과 왕의 권력을 둘러싼 입장이 점차 종교적 일원주의에서 이원주의로 이행하면서, 교황이 왕으로 대표되는 정치권력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즉 교황의 권위로 소유권을 특정 왕에게 양도할 수 없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교황의 절대적인 권력을 부정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은 인정되었다. 따라서 세속에 대한 교황의 직접적인 개입은 거부되었지만, 복음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황의 영향력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스페인 왕실에 아메리카 대륙의 소유권을 넘겨줄 직접적인 권한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세계에 거주하고 있던 신앙을 알지 못하는 미개한 원주민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개종시켜야 할 의무와 권한에서 나오는 간접적인 권력으로는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타나는 것이

다.(García y García, 38-39)이런 입장에 따라서 교황은 아메리카 대륙의 가톨릭 전파를 조건으로 가톨릭 양왕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안토니오 가르시아 이 가르시아는 교황의 소유권 양도와 관련한 권한의 근거를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⁴⁾ 그는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양도를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교황은 개종과 가톨릭 신자들의 구원이라는 교회의 영혼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페인 국왕에게 아메리카 대륙의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입장들에도 불구하고, 보다 명백한 것은 교회가 복음을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파할 실질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황으로서는 이러한 가톨릭 전파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가톨릭 양왕의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이러한 가톨릭 전파라는 교황의 목표와 발견된 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기를 원했던 스페인 왕실의 욕구가 서로 일치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당대의 발견과 함께 소유권을 부여하던 로마법적인 전통과 함께 이원론적인 입장이 가장 설득력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García y García, 42-43)

4) 종교적 이원론은 하나님이 가진 세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교황이 이어 받고 있으며, 교황이 이를 통해 스페인 왕실에게 아메리카 대륙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재자적 이론은 교황이 스페인 왕실과 포르투갈 왕실 사이의 영토를 둘러싼 갈등과 경쟁에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입장이다. 물론 실제로는 교황이 중재자적인 입장에서 보다는 ‘양도’라는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에 중재자적 이론은 현실과 다소 간극이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교황이 아메리카 대륙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봉토(en feudo)로 주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스페인 왕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교황청의 봉신(feudatario)으로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교황의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종교적 이원론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로마법의 전통에 따라 아메리카 대륙의 소유권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즉,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땅이나 사물의 소유권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양도라기보다는 교황청이 발견이라는 현실을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 왕실이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땅을 발견했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역시 인정보다는 양도(donación)라는 입장이 나타나 있는 교황의 칙령과는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권과 교황권의 병립을 인정하는 이원론 입장이 존재한다.(García y García, 42-43)

조셉-이그나시 사라나나(Josep- Ignasi Saranyana)는 다른 맥락에서 양도를 둘러싼 논쟁을 역사적으로 세 가지 태도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교황의 권한이 철저하게 신앙과 관련된 영혼의 문제에 국한되었다고 간주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교황은 현실 정치로 대표되는 세상사 측면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측면들 예를 들어 교회 운영이나 교회 재산과 같은 측면들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 결혼 등과 같은 시민적인 요소들 역시 교황의 권한 밖의 일이 된다. 두 번째는 교황의 권한이 영혼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세속적인 사안들까지 확대되고, 교육, 결혼 등과 같은 영역에서도 책임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교황의 권한이 세속적이고 황제나 왕의 역할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다는 입장으로, 교황이 왕과 같은 정치권력을 폐할 수 있는 세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입장이 18세기에 스페인 왕실과 교황청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났던 극단적인 제왕교권주의(regalism)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입장이 중세 이후로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입장이고, 세 번째는 중세시대 교황권의 우위를 주장하던 입장이다.(Saranyana 2009, 7)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의 복음화를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가톨릭 양왕에게 아메리카 대륙의 소유권을 양도한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칙령은 이후 1508년 율리우스 2세의 유니베르살리스 에클레시예(Universalis ecclesiae) 칙령을 통해 아메리카 교회에 대한 스페인 왕실의 파트로나토 권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아메리카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가톨릭 전파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얻은 스페인 가톨릭 양왕의 교회에 대한 파트로나토 권한은 지속적으로 확장된다. 초기 파트로나토가 아메리카 교회에 봉직할 성직자들을 추천하는 권한을 의미했다면, 점점 더 나아가 교황의 모든 문서가 국왕의 허가 없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적용될 수 없게 하는 국왕의 허가권(pase regio), 십일조 징수권, 교구의 영역을 결정할 권리, 선교사 등을 보내고 배치할 권리, 교황청과 아메리카 대륙의 주교들 사이의 소통에 대한 통제, 그리고 각 지역 공회회의 개최에 대한 통제 등으로 확대되어 갔다.(Saranyana 2009, 8)

스페인 왕실의 파트로나토 권리가 행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권한이 이처럼 늘어가면서, 이 제도는 더 이상 파트로나토 레알(Patronato real)로 분류

되기보다는 오히려 국왕 교황대리권(vicariato regio)이라고 불리게 된다. 율리우스 2세의 파트로나토 권리 인정을 통해 시작된 아메리카 교회에 대한 국왕의 개입 권한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왕실의 고유한 권한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제 가톨릭 양왕이 스스로를 아메리카 대륙에서 교황의 대리자 역할을 자처하며, 교황권과의 대립도 불사하게 된다.⁵⁾

이렇게 포르투갈 왕실이 교황으로부터 받았던 권한에서 시작된 파트로나토는 시간이 진행되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파트로나토는 교황이 스페인 왕실에 제공한 하나의 혜택으로 이해되었다. 스페인 왕실이 이 권한을 이용하여 아메리카 대륙에 교회를 설립하고 가톨릭 전파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파트로나토는 스페인 왕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한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즉, 스페인 왕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교황을 대신하여 가톨릭 교회의 세속적인 일들을 관장하는 교황의 대리인(delegado)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부르봉 왕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18세기에 이르러 왕권이 교권에 대해 우월하다는 입장으로 보다 강화되게 된다.(Saranyana 2009, 10) 즉, 교황의 단순한 대리자가 아니라, 교회의 세속적인 일들에 있어서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

2. 국왕 교황대리권과 파트로나토의 확장

이미 살펴본 것처럼 1508년 율리우스 2세가 스페인 왕실에 파트로나토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직을 맡고자 하는 인물들을 추천하는 권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페인 왕실은 파트로나토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들을 스스로 확보해 가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해 갔다. 즉,

5) 대표적인 예가 1504년 페르나도 왕과 율리오 2세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왕은 안티야스 제도에 세 개의 대교구를 만들려고 하는 교황의 칙령을 거부했는데, 이는 교황이 파트로나토 권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1508년 그가 우니베르살리스 에클레시아에 칙령을 통해 파트로나토 권한을 인정하면서 해소된다. 또한 카를로스 5세는 트레트 공의회에 참석하려는 아메리카 대륙의 주교들의 참석을 거부하고, 자신이 그들을 대표하겠다고 주장했다.(Saranyan 2009, 9)

알렉산더 6세가 칙령으로 스페인 국왕에게 양도한 아메리카 대륙의 소유권은, 점차 신대륙에서 스페인 왕실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아메리카 교회에 대한 스페인 국왕들의 권한 확대로 이어졌다. 파트로나토가 스페인 국왕이 아메리카 대륙의 정치와 종교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던 일련의 권리들을 인정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교황이 이러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광범위한 파트로나토 권리는 파트로나토 자체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그것의 실현에 있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교황청은 이것들을 반대하지 않았고, 교황이 부여한 파트로나토 권한과 함께 다양한 지역에서 큰 문제없이 적용되었다.(de la Hera 1992c, 89)

이렇게 해서 보다 확장된 파트로나토 권한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가 16세기 아메리카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입장은 국왕을 단순히 교회의 보호자(patronos)로 간주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황의 대리인(vicarios papales)로 간주했다. 이러한 입장을 국왕 교황대리권이라고 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태도가 교황권과의 대립 속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왕권 지지 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메리카 교회 내부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들은 스페인 국왕은 선교사의 파견이나 교회 운영 등에 있어 교황의 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의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왕실의 법령들은 교황의 칙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국왕이 교황을 대리해 교황과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교황의 대리자나 교황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왕의 권한 강화를 국왕 교황대리권이라고 명명하고 있다.(de la Hera 1992c, 90)

국왕 교황대리권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요인들은 복합적이다. 그중 하나는 매우 광범위한 파트로나토 권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확대된 파트로나토 권리는 교황이 스페인 왕실을 신뢰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교황이 아메리카 대륙의 교회들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황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왕에게 허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황이 아메리카 대륙이 성직자들

을 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아메리카의 성직자들은 가톨릭 선교나 교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세력이 교황이 아니라 스페인 왕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메리카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교황권보다다는 스페인 왕실이라는 실리를 선택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 왕실이 아메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의 교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보다 강화되게 된다.

또한 교회 조직이 점차 성장하면서 나타났던 기존 탁발 수도회 소속 성직자들(regulares)과 교구 소속 성직자(seculares) 사이의 갈등도 국왕 교황대리권을 요구하는 배경이 되었다. 즉 주교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교회 조직과 그간 원주민 거주지를 중심으로 가톨릭 선교의 첨병 역할을 해왔던 탁발 수도회 소속 성직자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선교지를 보호하기 위해 왕실의 영향력을 원했던 것이다. 즉, 교구 조직의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교구에 소속된 사제들의 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왕실의 영향력에 기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군 아메리카 교회를 교황이하 수직적으로 구축된 공식적인 교회 조직 밖에서 자신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교황의 이름으로 허용해주시기를 원했다. 따라서 이들은 스페인 국왕이 교황의 권한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아메리카에서 주교들과의 갈등에서 왕실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자 했던 탁발 교단들의 이해가 국왕 교황대리권을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왕실의 권한을 지지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토대는 스페인 가톨릭 양왕에게 교황이 주었던 양도권의 불확실성과 파트로나토 권한의 확대에 있다. 즉, 명시적으로 교황대리권을 허용하는 교황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는 1493년에 반포된 알렉산더 6세의 칙령들에서 시작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6세의 칙령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포르투갈과의 경계를 확정해주는 조건으로 스페인이 가톨릭 전파에 기여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스페인 국왕이 아메리카 대

룩에서 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교황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이다.(de la Hera 1992c, 90-91)

3. 국왕의 우위와 제왕교권주의(regalismo)

이렇게 확대된 파트로나토 권한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보다 더 확대된 형태를 갖게 된다. 즉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 속에서 왕권의 우위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태도가 나타난 것이다. 프랑스 절대왕정의 영향으로 제왕교권주의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등장하게 되면서, 유럽의 가톨릭 왕실들에서 새로운 태도들이 등장했다. 부르봉 왕가가 자리잡게 된 18세기 스페인 왕실에서도 이런 제왕교권주의가 나타나 교황권과의 관계에 있어 본질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국왕 교황대리권이 교황이 왕에게 자신의 권한을 일정 부분 양도하는 형태로 존재했다면, 이제 교회에 대한 국왕의 권한은 교황의 역할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왕권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소유권을 가톨릭 양왕에게 부여하고, 교황 율리오 2세가 파트로나토 레알을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던 신대륙에서 왕권의 상대적 우위는 이제 교황권 보다 왕권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나타날 정도로 교황권을 압도하게 된다. 이렇게 나폴레옹의 절대왕정에서 시작된 제왕교권주의는 18세기 스페인 부르봉 왕가 시기에 유입되었고, 특히 카를로스 3세 치세시기에 본격화되었다. 카를로스 3세가 시도한 식민지 행정 체계의 강력한 개혁조치는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왕권과 교황권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 스페인 왕실은 파트로나토 레알을 통해 교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간 교회의 여러 특권들에 대해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지는 않았다. 즉, 실질적으로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했지만 교회의 면책 특권을 용인하는 등 두 세력 사이에 일정한 균형을 인정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카를로스 3세 시기에 들어와 변화하게 된다. 카를로스 3세는 교회 권력에 대한 왕권의 우위를 보다 분명한 형태로 확보하고자 했다. 교황이 신대륙의 교회에 대한 개입을 보다 축소하고 왕권이 보다 직접적으로 교회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이

다.(León Zavala, 296)

결국, 국왕이 교회에 행사하는 권력을 설명하는 입장이, 교황의 일정한 양보에 의해 국왕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국왕 교황대리권에서 하느님의 권능에 의해 교황의 권한을 국왕이 직접 본원적으로 부여 받았다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본질적으로 제왕교권주의적인 이러한 입장은 결국 교회가 국가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교회’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내세우게 된다. 교회와 현실 정치의 관계가 역전되게 된 것이다. 카를로스 3세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교구의 새로운 설정, 수도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 종교의 교육제도의 분리 등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교회의 협력 없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1769년 이른바 토모 레히오(Tomo Regio)라는 칙령을 반포하여 아메리카 지역의 공의회를 조직하여 자신의 제왕교권주의적인 관철하고자 했다.(de la Hera 1992c, 98) 물론 이런 입장에 대해 실제로는 현실 속에서 제왕교권주의적인 입장이 왕권과 교황권 사이의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담론 차원에 그쳤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도 있다.(de la Hera 1992b, 95)

카를로스 3세의 입장에서 보듯이 18세기 들어 스페인 왕실은 다양한 법령을 통해 교회권력이 세속적인 영역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제한하면서, 순수하게 영혼과 관련된 영역에만 개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사제들이 관장하던 결혼이나 교육과 같은 시민 영역의 범위를 축소했고, 세속 재판관들이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렇게 강화된 왕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회 추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회가 주요 거점에서 진행하던 교육 사업을 통한 왕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왕권보다는 교황권에 대한 충성이라는 예수회의 신앙적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던 부르봉 왕가는 결국 예수회를 아메리카에서 추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아메리카에서 왕권의 일정한 한계를 보여 주면서 사제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면책권은 1812년 최종적으로 종결된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왕당파 지휘관들에게 저항 세력에 참여한 사제들을 교회 재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재판하고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사제들 또한 이제 왕권이 관철되는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León Zavala, 298)

물론 독립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교회와 정치권력은 또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식민지 발견부터 이어진 일련의 선교과정에서 보여준 교권과 왕권의 갈등과 긴장관계는 18세기 들어 제왕교권주의라는 왕권의 우위로 나타났다.

IV. 나가면서

정복 이후 초기 가톨릭 전파 과정은 정복이라는 스페인 왕실의 욕망과 교황의 선교적 사명이 결합된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초기 교황 대리 역할을 담당했던 보일 신부와 콜럼버스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력의 협력은 그리 순쉬운 것은 아니었다. 이 세력들 간의 협력 관계는 역사적인 시기에 따라 파트로나토 레알에서 국왕 대리교황제, 제왕교권주의 등으로 세력 관계에 따라 변화해 왔다. 그 중심적인 흐름은 교황권이 절대적인 우위에 서 있던 중세적인 질서에서 점차 세속의 정치권력이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과 경쟁은 단순히 교회와 정치권력의 대립이 아니었다. 교회 내에서도 왕권과 교황권의 경쟁에 대해 다른 입장이 존재했던 것이다. 특히 가톨릭 전파 초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탁발 수도회 소속 성직자들은 교황권보다는 오히려 왕권의 강화를 선호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교구 소속 성직자 중심으로 아메리카 교회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상실하는 것을 왕권에 의존하여 막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듯 초기 가톨릭 전파 과정에서 탁발 수도회 소속 성직자들과 교구 소속 성직자들 사이의 갈등과 경쟁은 특징적인 사건이었고, 점차 교구를 중심으로 교회 질서가 자리 잡게 되면서 아메리카 교회는 초기 가톨릭 전파 시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초기 가톨릭 전파 시기는 두 단계로 나뉘볼 수 있는데 카리브 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정복 초기 단계는 다양한 이유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두 번째 단계인 멕시코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계에서 본격적인

가톨릭 전파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물론 시기와 지역에 따라 그 특징을 달리 하지만, 아메리카 초기 가톨릭 전파는 주로 탁발 수도회를 중심으로 원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진행되었다. 학자에 따라 ‘토대 신학의 구축기’ 혹은 ‘정복과 복음화에 맞서 예언자적 신학’(Saranyana 1992, 259)라고 부르는 이 시기를 중심으로 가톨릭 선교가 본격화 되었다. 아메리카 대륙에 신학이 태동하던 이 시기 이후로 약 5세기 이후 아메리카 대륙은 엄청난 가톨릭 신자수를 가진 대륙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물론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개신교 세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가톨릭 내부에서도 복음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등 라틴아메리카 종교 지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르헨티나 태생의 프란시스코 교황이 탄생한 것은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가톨릭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 개신교의 성장과 복음주의적 경향이 보여주듯이, 가톨릭이 갖고 있는 제도화된 맥락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또한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식민 시기 가톨릭 전파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가톨릭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BORGES, Pedro, “La Sante Sede y la iglesia americana”, Borges, Pedro(ed.), Historia de la Iglesia en Hispanoamérica y Filipinas(Siglos XV-XIX) Vol. I: Aspectos generales, Madrid: Biblioteca de autores cristianos/Quinto Centenario/Estudio Teológico de San Ildefonso de Toledo, 47-61, 1992,
- _____, (ed.), Historia de la Iglesia en Hispanoamérica y Filipinas(Siglos XV-XIX) Vol. I: Aspectos generales, Madrid: Biblioteca de autores cristianos/Quinto Centenario/Estudio Teológico de San Ildefonso de Toledo, 1992.
- DE LA HERA, Alberto, “El patronato y el vicariato regio en Indias”, Borges, Pedro(ed.)(1992), Historia de la Iglesia en Hispanoamérica y

- Filipinas(Siglos XV-XIX) Vol. I: Aspectos generales, Madrid: Biblioteca de autores cristianos/Quinto Centenario/Estudio Teológico de San Ildefonso de Toledo, 63-79, 1992a.
- _____, “El regalismo indiano”, Borges, Pedro(ed.)(1992), Historia de la Iglesia en Hispanoamérica y Filipinas(Siglos XV-XIX) Vol. I: Aspectos generales, Madrid: Biblioteca de autores cristianos/Quinto Centenario/Estudio Teológico de San Ildefonso de Toledo, 81-97, 1992b.
- _____, “La doctrina del Vicariato regio en Indias”, Fernando Navarro Antolín(ed.), Orbis incognitus : avisos y legajos del Nuevo Mundo: homenaje al profesor Luis Navarro García, Huelva: Asociación Española de Americanistas, 89-100, 1992c.
- DE ZABALLA BEASCOECHEA, Ana, "Bibliografía para el estudio de la implantación de la Iglesia en América", Anuario de historia de la Iglesia, 2, 199-224, 1993.
- DOUGNAC RODR GUEZ, Antonio, Manual de historia del derecho indiano, México: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Jurídicas de la UNAM, 1994.
- DUSSEL, Enrique, Hipótesis para una historia de la iglesia en América Latina, Barcelona: Editorial Estela, 1967.
- _____, Historia general de la iglesia en América Latina. Tomo I : introducción general a la historia de la iglesia en América Latina, Salamanca:Ediciones Sígueme/CEHILA, 1983.
- _____, “Los ciclos evangelizatorios”, en R. Ballán(ed.), Misioneros de primera hora. Grandes evangelizadores del Nuevo Mundo, Madrid: Mundo Negro, 1990.
- FLORISTÁN, Casiano and KEEFE, Michael, “Evangelization of the 'New World' : An Old World Perspective”, Missiology, 20:2, 133-149, 1992.
- GARCÍA AHUMADA, Enrique, "La primera evangelizacion de América", Medellin, 66, 240-256, 1991.
- GARCÍA Y GARCÍA, Antonio, "La donación pontificia de las Indias", en Historia de la Iglesia en Hispanoamérica y Filipinas (siglos XV-XIX), en BORGES, Pedro(ed.), Historia de la Iglesia en Hispanoamérica y Filipinas(Siglos XV-XIX) Vol. I: Aspectos generales, Madrid: Biblioteca de autores cristianos/Quinto Centenario/Estudio Teológico de San Ildefonso de Toledo, 33-45, 1992.
- GIL ALBARRACÍN, Antonio, "Estrategias espaciales de las órdenes mendicantes",

- Scripta Nova: Revista Electrónica de Geografía y Ciencias Sociales, Vol. X, núm. 218, 2006.
- LEÓN ZAVALA, Jesús Fernando, “El real patronato de la iglesia”, Revista de la Facultad de Derecho de México, núm. 236, 287-303, 2001.
- LUQUE ALCAIDE, Elisa y Saranyana, Josep-Ignasi, La iglesia católica y América, Madrid: MAPFRE, 2002.
- PIHO, Virve, “La organización eclesiástica de la nueva España durante los siglos xvi y xvii”, Estudios de Historia Novohispana, 10, 11-30, 1991.
- PORRAS, Guillermo, “El regio patronato indiano y la evangelización”, SCRIPTA THEOLOGICA, 19, 755-769, 1987.
- RUBÉN AMESTOY, Norman, "Conquista y colonización del Nuevo Mundo(1492-1519)", Cuadernos de Teología, 30, 23-44, 2011.
- RUBIAL GRACÍA, Antonio, “Las órdenes mendicantes evangelizadoras en Nueva España y sus cambios estructurales durante los siglos virreinales”, en MARTÍNEZ LÓPEZ CANO, María del Pilar (coord.), La Iglesia en Nueva España: problemas y perspectivas de investigación, México: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Históricas,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2010.
- SARANYANA, Josep-Ignasi, “Sobre los orígenes del Cristianismo en América: Historia doctrinal de una polémica”, Anuario de historia de la Iglesia, 1, 257-286, 1992.
- _____, Breve historia de la teología en América Latina, Madrid: Biblioteca de autores cristianos, 2009.

❖ ABSTRACT

The study on the diffusion of Catholicism in the New World: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the pope

LEE, Seong hun

The 'discovery' or 'conquest' of the New World in 1492 was the starting point of world history that irrevocably changed the fate of the Latin American continent. The global stream known as 'Columbian Exchange', which was the widespread inter-continental contacts, inter-civilizational conflicts, or bilateral communication, has rendered multifarious effects throughout many historical periods up to the very contemporary time. The propagation of Catholicism initiated along with this 'discovery' transformed Latin America of nowadays in the region that has the biggest Catholic population in the world.

The previous studies in Korea regarding Latin American Catholicism has focused on the spread of Catholicism in relation to the European colonization, rather than analyzing the concrete and detailed ways in which Catholicism exerted tremendous influences in the whole continent. They were less attentive to various historical contexts in which the diffusion of Catholicism differed greatly according to cultural landscapes and political specificities. Thus, this essay attempts to examine the diffusion of Catholicism from the perspective of confrontation between royal authorities and the power of church.

The essay points out that the royal communities and institutional authorities which facilitated the initial process of Catholic evangelization maintained antagonistic relationship with ecclesial powers. By delving into the gradual transformation of church systems, it reveals that Catholicism in Latin America became a major field for conquerors in power to attain economic and political dominance. And unlike the initial submission and hospitality, the religious convert of the indigenous people attested to the violent inhumanity and opposition. Therefore, the essay aims to pave a clearer way to the understanding of complicated dynamics and conflicts between Catholicism in Latin America and the establishment of Spanish colonization.

Key Words

라틴아메리카, 가톨릭 전파, 가톨릭, 교황 칙령, 파트로나토

Latin America, evangelization, catholicism, bull, patronato

논문접수일: 2014년 11월 14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6일